

<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해 >

시편 32:7,8 / 새찬송가 430 (통일 456)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올해는 우선 우리 삶의 진정한 피난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양이 이리 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눅10:3). 인생에는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이 우리를 위험에 빠트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 죄악의 유혹 등이 있습니다(시91:1-7). 또 심한 전염병과 같은 너도 나도 걸릴 수 있는 질병과 의식할 수 없는 사이에 생기는 병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수습해야 하기에 거쳐 외에 따로 피난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재앙으로부터의 거처도 되시고 피난처도 되십니다(시91:9-11). 이는 화와 재앙이 우리에게 아예 닥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와 온갖 악한 영들의 시험과 악에 빠뜨리려는 역사만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살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거처 또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 사람은 날마다 안전하게 보호 받는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시32:7). 새해에는 이런 기쁨을 노래하는 2026년이 되어야 합니다.

2. 올해는 주님으로부터 나의 인생길을 지도받고 훈계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축복의 삶, 위대한 삶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새찬송가 379장).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건강하고 부요하고 쾌락을 즐기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 불행하고 아무 보람도 없으며 결국 파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 갑작스럽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시37:23,24).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별한 계기를 통해 인도하심 받기를 기도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받기로 작정하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내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시32:8).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반드시 축복의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히3:14,15),(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 적용 & 실천 > 날마다 매 순간 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